

은퇴 후 生을 말하다 <9> <제2부> 인생 2막 여는 사람들

⑥ 화장품 회사 창업 제이엘비(주)장상근 대표

공직생활 30년... 이젠 앞으로 30년 준비할 때 내가 받은 도움만큼 다시 사회에 돌려주고 싶어

화장품 회사 창업 3년차 제이엘비(주) 장상근(68) 대표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7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 30여년 간 광주시 건축과장·건설본부장·건설국장 등 건설·건축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치고 2011년 퇴임했다. 이후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상임부회장을 1년 맡았고, (재)광주디자인센터 원장으로 4년 근무하다 2016년 봄 퇴직했다. 디자인센터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그는 자본금 2억원으로 화장품 회사를 차렸다.

건축·건설분야 공직경력을 앞서서 지역건설사에 취업해 역대 연봉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터라 그의 창업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창업분야도 건축·건설과 무관한 '자연주의 프리미엄 화장품'을 표방한 회사 창업이라니...

"십 년도 더 전부터 이답에 퇴직하면, 인생 2막을 창업으로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장모님께서 103세에 돌아가시고, 제 아버님도 교장으로 퇴직하시고 30여년을 산에서 염소를 치시다가 3년 전 95세 때 하산하셨거든요. 앞으로 최소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연금이나 받고 집에서 지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화장품 회사였을까. 건축건설 분야 공직 경력만 30년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건설사에서 소위 대관업무 보는 임원으로 가거나, 건축자재 유통·건축자재 제조 분야가 수월하지 않았을까.

"건설사 임원으로 가면 몇 년간은 2-3억원 연봉을 받겠조, 특별한 일 없이 놀다시피 하다 가끔(공무원을 상대하는) 대관업무를 보고요. 근데 이런 일이라는 게 후배들 눈치가 보이는 일이고, 아이고 전 그런 일과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화장품 회사 창업은 그의 피부와 관련있다.

그는 40대부터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썼다고 한다. 심한 건성피부여서 봄 가을이면 얼굴이 트고 갈라질 정도였는데, 시중에 파는 화장품과는 맞지 않

았다. 책도 보고 주변 전문가에게 조언도 구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만들었다.

"천연 원료를 쓰고 피부에 자극이 작으면서 보습도 되고 윤기가 나면 좋은 화장품이죠. 좋은 화장품만 만들면 날개 돋친 듯 팔릴 줄 알았죠. 순진한 생각이었죠.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할까,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창업 후 3년을 용케 죽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그는 창업 첫 해부터 화장품 연구소장, 마케팅·유통·영업 직원 등 2-3명의 직원을 두고 회사를 운영해왔다. 창업 초기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인건비와 사무실·연구소 유지에만 매월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나갔다. 자본금이 급속도로 줄면서 직원들을 줄였고 현재는 사실상 1인 기업이 됐다.

랜드로 8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다.

성인용으로 클렌징 오일, 바디 오일, 스킨, 에센스, 밸런스 앰플, 회복크림 등을 만들고 어린이용 바디 클렌징, 바디오일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하나같이 올리브유, 코코넛오일, 해바라기씨 오일, 카놀라유 등 천연 식물에서 가져온 재료를 이용해 화장품을 생산, 피부 자극이 없는 게 장점이라고 장 대표는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현재 개발이 완료된 40-50대를 겨냥한 화장품에 이어, 20-30대용으로 보다 저렴한 화장품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장 대표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정부, 자치단체로부터 또다시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국외시장 개척은 물론 제품

자본금 2억으로 창업 3년 고군분투... 40대부터 화장품 만들어 사용 천연원료 장점 해외바이어 관심 높아... 정부도 중소기업 적극 지원

"창업을 후회하지 않나요?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3년 수업을 내면서 남편에 부탁해보니깐 이젠 좀 길어 보입니다. 요 며칠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등을 돌며 바이어들을 만났는데 저희 제품에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바이어 7명 가운데 2명과는 거래 성사 가능성이 큼니다. 공장에서 양산한 게 아니라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제품을 만들고 천연원료로 만든다는 데 그 쪽 관심이 대단합니다"

장 대표 부인 정화경(67)씨도 처음엔 남편의 창업을 극구 말했으나 이제는 일손이 딸리면 제품 생산을 도울 정도로 응원한다고 한다. 남편이 만든 화장품을 사용한 후 효과를 봤고, 사업을 키워나가려는 열정을 앞에서 지켜보면서다.

장 대표 회사인 제이엘비(주)는 밸런스리라는 브

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을 비롯한 중소기업 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외에서 열리는 (화장품) 박람회·전시회의 경우 지자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항공료 50%, 숙박비 100%가 지원되고 여러 중소기업인이 함께 시장 개척을 떠나기 때문에 공동으로 통역도 지원해주는 등 섬세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게 장 대표의 설명이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받쳐주는 한 회사를 키워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공직 후배들에게도 인생 2막을 맨 주먹으로 시작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장상근(68) 제이엘비(주) 대표가 25일 장성군 남면 자신의 회사 연구실에서 천연원료를 소재로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창업으로 인생 2막 준비하는 이들에게

인생1막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해본다.

우선 우리 인생이 과거 선배들처럼 정년 후 금방 이세상을 하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다.

또 다른 인생, 그러니깐 은퇴 후의 인생 역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한만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만큼 고생했으니 이제 즐기면서 취미생활이나 하자하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때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지루한지 또한 보람 얻어 허송세월해야 하는지. 그 생각을 하면 지금의 직장생활만큼 더욱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듯 싶다. 왜냐하면 그때는 젊음이라는 재산이 있기에 얼마든지 만회 가능성이 있지만 인생1막은 그렇지 않으니깐.

어차피 한번사는 인생이라면 인생1막도 도전해 보는 것이 보람되지 않을까?

실패를 줄이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창업 후 3년 가장 중요... 아이템 등 철저히 검증할 것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깐.

내 좌우명으로 우선 시작하려고 한다.

나는 좌우명을 '밀져보야 본전, 이왕이면 다홍치마, 인생은 파도타기'로 정하고, 무슨 일든지 적용하려고 애썼다.

밀져보야 본전, 무슨 일든지 우선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자.

이왕 하는 것이면 더욱 더 좋게 아름답게 또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부족한 것은 어떻게든 채우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는 항상 나쁘지않게 나왔다는 것은 결과물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인생은 파도타기,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어려운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윈드서핑을 즐기자는 마음가짐으로 부딪혔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어렵지않게 헤쳐나온 것 같다.

철저히 준비한다 해도 어차피 새로운 일은 도전의 연속. 도전은 역시 쉽지 않은 법. 그만큼 대가를 치를 각오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철저한 준비와 굳은 각오가 필요하다.

특히 창업을 희망 하는 후배님들은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창업 후 3년을 어떻게 버티어 하는가'를 대비해야 한다.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쉽게 믿어선 안 된다고 조언하고 싶다. 사람이든, 사업 아이템이든 우선 철저히 검증하고 검증하시길 부탁 드린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사기꾼'은 더 많은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인생 1막을 창업으로 정했다면 더욱 말이다.

어차피 한번사는 인생, 지금까지 도움을 준 우리 사회와 주변을 위해 내가 도움을 주고 삶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것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창업을 하고 보니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동료들을



장상근(68) 제이엘비(주) 대표가 25일 연구실에서 천연소재로 만든 화장품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가끔 만난다. 동지와 같은 이들을 보면 절로 힘도 솟는다. 후배들이여, 연금에 의지하지 말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인생1막을 철저히 준비하자. 비록 힘이

들지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1막을 열어 보자.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INNOVATION AWARDS 수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